

구곡담 후보들 가슴은 '숯검댕'

정개특위 지역구 폐지 논의에 불안감 확산

선거운동하라, 지역구 지키라 울분 토로도

여야의 선거구 다름 속에 선거구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전남 구례·곡성·담양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4·11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구례·곡성·담양 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5명의 민주당통합당 예비후보들은 힘든 선거 운동과 선거구 존치를 위한 상경 시위, 선거구 폐지 우려에 따른 심적 고통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선거구 존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과 기대 속에 매일 밤낮으로 농촌 구석구석을 돌며 선거 운동에 '울인'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선거구가 폐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삭이지 못한 채 선거구 확정 결과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각 후보 선거캠프도 침울한 분위기 속에 정치권에 대한 분노로 휩싸여 있다. 선거운동에 상경투쟁까지 연이어 강행군을 펼치고 있지만, 여야가 여전히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지부진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보여줬던 선거운동원들마저 선거구 폐지 우려가 높아지면서 '열정'은 점차 '분노'로 바뀌고 있다. A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매일 선거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선

거구 획정 문제로 예비후보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례·곡성·담양지역 민심도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심이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가 폐지될 경우 투표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지금 상황에서 선거구가 폐지될 경우 투표율이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퇴직하고 이번 총선에 뛰어든 이계호 예비후보는 "수험생들에게 수험표까지 나눠주고, 고사장에서 갑자기 시험과목을 바꾼다는 웃지 못할 일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이 있는 기성정치권의 정치 폭력"이라고 분노했다.

고현석 예비후보는 지난 17일과 20일 잇따라 주민들과 함께 상경해 국회의와 민주당통합당 지도부에 선거구 폐

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과 상경투쟁을 벌이아하며 하고 있다. 고 예비후보는 "정치에 대한 소외감과 지역민들이 분노하며 투표권 거부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하지만, 선거구가 존치될 것이라고 믿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폐지 움직임에 반발, 민주당통합당에서 15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김재두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뒷전으로 미룬 채 중앙당과 국회를 오가며 선거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죽을 맛이다. 다른 선거구는 선거인단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거인단 모집은 커녕 선거운동도 못할 지경"이라며 "선거구 지키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국창근 예비후보도 선거운동과 상경투쟁을 병행하며 선거구 존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 예비후보는 "모바일 투표 접수가 시작되는 등 상당 부분 경선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 후보들은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면서 "담양·곡성·구례를 공존분해해 다른 선거구와 묶을 경우 불공정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통합당 대표실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과 각오를 밝힌 뒤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공천쇄신 야권 연대 이뤄내야"

민주당 입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민주당통합당에 입당했다. 지난해 9월 시민사회 대표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지 5개월여 만이다. 박 시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거대한

전환과 새로운 시작이 이뤄질 2012년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오랜 고민 끝에 민주당통합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겸손한 자세와 소통을 위한 준비 그리고 확실한 공천 쇄신과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당원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소명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박 시장은 아울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비롯해 의혹의 확대·재생산에 관계된 모든 이들을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박 시장의 입당을 환영하면서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명숙 대표는 "저희가 정말 큰 힘을 얻었다. 그동안 마음은 한 가지였지만 몸이 떨어져 있었다.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거구 협상 또 결렬... 오늘은 결판 날까

정개특위 마무리 합의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하지만, 여야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확정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성영, 민주당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됐다"면서 "각 당 지도부에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내일

(24일) 중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일단 내일 정개특위를 소집해 놓았는데 민주당통합당이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기춘 의원 역시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아 따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내일 회의의 시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경기 파주, 강원 원주, 세종시에서 1석씩 총 3석을 늘리고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영·호남에서 같은 수의 의석을 줄이자는 ▲영·호남 각 1석씩 총 2석을 줄이는 방안 ▲영·호남 각 2석씩 총 4석을 줄이는 방안 ▲영·호남과 서울에서 각각 1석씩 총 3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특히 19대 총선에 한해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선거구를 늘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19대 총선이 4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늦출 수는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4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주성영·박기춘 간사는 24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정개특위 간사 직에서 공동으로 사퇴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역주의 탈피 정책보고 투표해야"

강지원 매니페스토 대표 인터뷰

"이번 4·11 총선은 영·호남 모든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을 보고 후보자들을 판단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지원 상임대표는 2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영·호남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대지역이다. 지역주의를 탈피하지 못하면 정

책 선거는 절대 못한다"며 "과거 물자마 식으로 투표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 시민·사회단체별로 낙선·낙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체는 후보자들의 공약이행 여부나 정책 공약 등을 수집해 유권자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나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호남지역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30% 이하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이다"라며 "거짓 공약

에 두 번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 공약이행 여부를 비교한 2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공개를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게 국민 감정에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좋은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훌륭한 정책공약은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하지만, 기간 이러한 공약은 없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감동하는 많은 정책공약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금 누가 할소리지나 아십니까?

Financial Consultant

삼성생명 컨설턴트는 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부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요

삼성생명 컨설턴트, 이은주 FC

직장생활을 한번도 안 해본 100% 전업주부

삼성생명 이은주 FC는 컨설턴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스무 살에 바로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다가 시작한 컨설턴트,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 "직장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주부로서 살았는데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교육이나 받아보고 결정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어요."

금융, 전혀 몰랐지만, 교육 받고 베테랑이 되다

그렇게 시작한 컨설턴트 교육, 그녀는 교육 내용에 감탄했다.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세일즈 스킬, 전화 거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교육에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엔 정말 문외한이었던 그녀, 이제는 '교육 프로세스'를 잘 따라만 가도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100명의 고객 리스트로 시작하다

이은주 FC의 첫 일은 100통의 전화였다. 컨설턴트를 시작하고 어떻게 고객을 만나야 하나 막막해하던 그녀에게, 회사는 관리가 필요한 기존 고객 100명의 리스트를 주었다. 큰 기대없이 전화를 건 그녀, 정말 놀랍게도 고객들이 먼저 전화가 되었다. '상당하고 싶은데 외담'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첫 달에 세 건의 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 후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20대부터 90대까지 정년없이 평생을 전문가로 삼성생명 컨설턴트에 도전하세요!

- 국내 최고수준의 신인컨설턴트 육성과정, 전문가 과정, 보험MBA 등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활동 지역 제공 및 고객 소개 등 영업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입니다
- 보험계리사(123명), 재무설계사(231명), 금융위원관리사(71명)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전문조직의 지원이 든든합니다 (2012년 1월말 기준)
- 투자,세무,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FP센터의 지원으로 통합적 재무설계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컨설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스마트폰, 노트북을 활용한 현장대응이 가능합니다
- 50년 금융노하우와 156조 자산규모(2011년 12월말 기준)의 국내 최고, 최대 보험사가 가진 브랜드 파워가 든든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일자리는 많습니다 삼성생명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합니다

컨설턴트 지원하기 QR코드
 자원 문의: 062-230-5201
 www.samsunglife.com/fc.html

보험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삼성생명 SAMSUNG